

주님의 품 안에서

성체조배와 묵상을 통한 제자양성자료

- 02희망의 서곡

심홍보

II 희망의 서곡

05 내가 태어난 날이여 차라리 사라져 버려라(고통의 진실-구원에 이르는 고통)

- 051 내가 태어난 날이여(욥 1; 2; 3; 4; 6; 7; 38; 40; 42)
- 052 세상 만사 헛되다(전도 1, 2; 3,1-22)
- 053 내가 태어난 날이여(요나 4,1-11)
- 054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시편 22)
- 054-1 고난을 겪으며 순종(히브 5,1-10)
- 055 고통의 진실-구원에 이르는 고통 종합

06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희망의 목소리-하느님의 자비)

- 061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이사 42,1-9)
- 062 임마누엘(이사 7,14; 미가 6,8; 7,18-20)
- 063 유다에게 구원을(나훔 1,12-2,3; 하바 2,1-6)
- 064 선한 목자(자카 13,1-9; 말라 3,1-5)
- 064-1 세례자 요한의 증언(요한 1,19-27)
- 065 희망의 목소리-하느님의 자비 종합

07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천지개벽-가난과 겸손한 탄생)

- 071 예수님 탄생 예고(루카 1,26-38)
- 072 마리아 엘리사벳 방문과 노래(루카 1,39-56)
- 073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마태 1,18-25-)
- 074 예수님의 탄생(루카 2,1-7)
- 074-1 말씀(로고스) 찬가(요한 1,1-18)
- 075 천지개벽-가난과 겸손한 탄생 종합

08 내 사랑하는 아들(주님의 세례-공생활의 시작)

- 081 목자들의 방문(루카 2,8-20)
- 082 동방박사들의 방문(마태 2,1-12)
- 083 예수님의 할례와 성전 봉헌과 시메온과 한나의 예언(루카 2,21-39)
- 084 예수님의 유소년 시절(루카 2,40-52)
- 084-1 세례를 받으시다(마태 3,13-17)
- 085 주님의 세례-공생활의 시작 종합

05 내가 태어난 날이여 차라리 사라져 버려라(고통의 진실-구원에 이르는 고통)

051 내가 태어난 날이여(욥 1; 2; 3; 4; 6; 7; 38; 40; 42)

성경소구 억울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느님께 충실했던 욥(욥 1,8-12.20-22; 2,4-10; 3,1-3.11; 4,1.7; 6,1-2.24-25; 7,7.18; 38,1.2; 40,7-8; 42,1-3.10.16-17)

1 ⁸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와 같이 흠 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⁹이에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욥이 까닭 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¹⁰당신께서 몸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으로 울타리 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내리셔서, 그의 재산이 땅 위에 넘쳐 나지 않습니까? ¹¹그렇지만 당신께서 손을 펴시어 그의 모든 소유를 쳐 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눈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¹²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좋다, 그의 모든 소유를 네 손에 넘긴다. 다만 그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이에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²⁰그러자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²¹말하였다.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²²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께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2 ⁴이에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가죽은 가죽으로! 사람이란 제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놓기 마련입니다. ⁵그렇지만 당신께서 손을 펴시어 그의 뼈와 그의 살을 쳐 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눈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⁶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좋다, 그를 네 손에 넘긴다. 다만 그의 목숨만은 남겨 두어라.” ⁷이에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 나와, 욥을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고약한 부스럼으로 쳤다. ⁸욥은 질그릇 조각으로 제 몸을 긁으며 잣더미 속에 앉아 있었다. ⁹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그 흠 없는 마음을 굳게 지키려 하나요?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 버려요.” ¹⁰그러자 욥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미련한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3 ¹마침내 욥이 입을 열어 제 생일을 저주하였다. ²욥이 말하기 시작하였다. ³차라리 없어져 버려라, 내가 태어난 날, “사내아이를 배었네!” 하고 말하던 밤! ¹¹어찌하여 내가 태중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숨지지 않았던가?

4 ¹테만 사람 엘리파즈가 말을 받았다. ⁷생각해 보게나, 죄 없는 이 누가 멸망하였는가? 올곧은 이들이 근절된 적이 어디 있는가?

6 ¹욥이 말을 받았다. ²아, 누가 제발 나의 원통함을 저울질해 보고 나의 불행도 함께 저울판에 달아 보았으면! ²⁴니를 가르쳐 보게나, 내가 입을 다물겠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깨우쳐 보게나. ²⁵바른말이 어떻게 속을 상하게 할 수 있나? 자네들은 무엇을 탓하고 있나?

7 ⁷기억해 주십시오, 제 목숨이 한낱 입김일 뿐임을. 제 눈은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¹⁸아침마다 그를 살피시고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십니까?

38 ¹주님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다. ²지각없는 말로 내 뜻을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

나?

40 ⁷사내답게 허리를 동여매어라.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하여라. ⁸네가 나의 공의마저 깨뜨리려느냐? 너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나를 단죄하려느냐?

42 ¹그러자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²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³당신께서는 “지각없이 내 뜻을 가리는 이자는 누구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지꼈었습니다. ¹⁰욥이 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자, 주님께서는 그의 운명을 되돌리셨다. 주님께서서는 욥이 전에 소유하였던 것을 갑절로 더해 주셨다. ¹⁶그 뒤 욥은 백사십 년을 살면서, 사 대에 걸쳐 자식과 손자들을 보았다. ¹⁷이렇게 욥은 늙그막까지 수를 다하고 죽었다.

묵상안내

가끔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것일까? 전생애 뭐가 잘못되었는가?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가 하면, 내 인생은 나 혼자 밖에 돌볼 이가 없고, 내 손만이 나를 살리는 길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나를 돌보고 보호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주 하느님의 사랑을 느껴봅시다.
3. 아픔과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여길 그 때 더욱더 깊이 다가오는 주 하느님과 그분이 펼쳐주시는 희망을 그려봅시다.

묵상노트

성경소구 모든 것이 허무로다(코헬 1,2-3; 3,1-22)

1 ²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³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모든 노고가 사람에게 무슨 보람이 있으랴?

3 ¹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²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³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부술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 ⁴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 뿜 때가 있다. ⁵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깨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⁶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던져 버릴 때가 있다. ⁷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⁸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⁹그러니 일하는 사람에게 그 애쓴 보람이 무엇이겠는가? ¹⁰나는 인간의 아들들이 고생하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일을 보았다. ¹¹**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또한 그들 마음 속에 시간 의식도 심어 주셨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시작에서 종말까지 하시는 일을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 ¹²인간에게는 살아 있는 동안 즐기며 행복을 마련하는 것밖에는 좋은 것이 없음을 나는 알았다. ¹³모든 인간이 자기의 온갖 노고로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¹⁴나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영원히 지속됨을 알았다. 거기에 더 보탬 것도 없고 거기에서 더 뺄 것도 없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¹⁵있는 것은 이미 있었고 있을 것도 이미 있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사라진 것을 찾아내신다.

¹⁶나는 또 태양 아래에서 보았다, 공정의 자리에 불의가 있음을, 정의의 자리에 불의가 있음을. ¹⁷나는 속으로 말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느님께서서는 심판하시니 모든 일과 모든 행동에 때가 있기 때문이다.’**

¹⁸나는 인간의 아들들에 관하여 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어 그들 자신이 다만 짐승일 뿐임을 깨닫게 하신다고. ¹⁹사실 인간의 아들들의 운명이나 짐승의 운명이나 매한가지다. 짐승이 죽는 것처럼 인간도 죽으며 모두 같은 목숨을 지냈다. 인간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모든 것이 허무이기 때문이다. ²⁰모두 한곳으로 가는 것. 모두 흙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흙으로 되돌아간다. ²¹인간의 아들들의 목숨이 위로 올라가는지 짐승의 목숨이 땅 아래로 내려가는지 누가 알리오? ²²그래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밖에는 좋은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이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죽은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누가 그를 이끌어 줄 수 있으리오?

묵상안내

코헬렛은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허무라고.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고. 그렇다면

허무는 무엇이고, 허무한 데도 불구하고 때가 있음은 무슨 말일까? 인간 세상에서 인간은 그저 일정 기간 존재했다가 때가 되면 가버리는 손님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주인이 아니므로 인간의 눈에는 허무하고 하느님이 정해주시는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음을 알려줍니다. 주 하느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때에 함량이 부족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존재가 되도록 늘 깨어 노력합시다.

목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내게 허무한 일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3.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주시는 때는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4. 우리를 향해 때를 마련하시고 그 때에 맞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주시는 주 하느님의 섭리와과 안배를 바라봅시다.

목상노트

053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자애를 깨우쳐 주시다(요나 4,1-11)

성경소구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자애를 깨우쳐 주시다(요나 4,1-11)

4 ¹요나는 이 일이 매우 언짢아서 화가 났다. ²그래서 그는 주님께 기도하였다. “아, 주님! 제가 고향에 있을 때에 이미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둘러 타르시스로 달아났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시며, 벌하시다가도 쉬이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³이제 주님, 제발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⁴주님께서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말씀하셨다. ⁵요나는 그 성읍에서 나와 성읍 동쪽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하였다. ⁶주 하느님께서 아주까리 하나를 마련하시어 요나 위로 자라오르게 하셨다. 그러자 아주까리가 요나 머리 위로 그늘을 드리워 그를 고통스러운 더위에서 구해 주었다. 요나는 그 아주까리 덕분에 기분이 아주 좋았다. ⁷그런데 이튿날 동이 틀 무렵, 하느님께서 벌레 하나를 마련하시어 아주까리를 쏘게 하시니, 아주까리가 시들어 버렸다. ⁸해가 떠오르자 하느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보냈다. 거기에서 해가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요나는 기절할 지경이 되어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⁹그러자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셨다. “아주까리 때문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가 “옳다 뿐입니까?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대답하니, ¹⁰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 버린 이 아주까리를 그토록 동정하는구나! ¹¹그런데 하물며 오른 쪽과 왼쪽을 가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 십이만 명이나 있고, 또 수많은 짐승이 있는 이 커다란 성읍 니네베를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묵상안내

예언자 요나는 평소에 반갑지 않던 니네베 사람들에게 가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명을 받고서는 도망칩니다. 그러다 폭풍에 시달리는 배에서 제물로 바다에 던져져 큰 고기 뱃속에서 삼일을 머물다가 육지에 오릅니다. 어쩔 수 없이 니네베에 가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했더니, 니네베 사람들이 회개의 참회행위를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니네베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니네베 사람들이 벌을 받기는커녕 잘 되는 것을 바라보기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를 본 하느님은 요나의 머리 위로 아주까리 그늘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다가 아주까리를 말라 버리십니다. 요나가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키우지도 않은 아주까리를 아쉬워하면서, 왜 수 많은 사람들이 나쁜 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내 주위에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하여 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일을 회개하고 돌아와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3. 내 형제들에게 잘못했던 나의 지난 과오와 죄악을 살펴봅시다.
4. 내 큰 죄를 용서해 주신 주 하느님의 커다란 사랑을 가슴에 담고 형제들의 사소한 잘못을 용서해 줍시다.

묵상노트

성경소구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시편 22)

22 ²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³저의 하느님, 온종일 외치건만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⁴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좌정하신 분.

⁵저희 선조들은 당신을 신뢰하였습니다. 신뢰하였기에 당신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⁶당신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고 당신을 신뢰하여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⁷그러나 저는 인간이 아닌 구더기 사람들의 우썃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⁸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뱉니다.

⁹“주님께 맡겼으니 그분께서 그자를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그분께서 구해 내시겠지.”

¹⁰그러나 당신은 저를 어머니 배 속에서 이끌어 내신 분

어머니 젖가슴에 저를 평화로이 안겨 주신 분.

¹¹저는 모태에서부터 당신께 맡겨졌고 제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¹²체계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환난이 다가오는데 도와줄 이 없습니다.

¹³수많은 수소들이 저를 에워싸고 바산의 황소들이 저를 둘러싸

¹⁴약탈하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저를 향하여 입을 벌립니다.

¹⁵저는 물처럼 옆질러지고 제 뼈는 다 어그러졌으며

제 마음은 밀초같이 되어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¹⁶저의 힘은 옹기 조각처럼 마르고 저의 혀는 입속에 들러붙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죽음의 흠에 앉히셨습니다.

¹⁷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저를 둘러싸 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¹⁸제 뼈는 날날이 썩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저를 보며 좋아라 합니다.

¹⁹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²⁰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멀리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²¹저의 생명을 칼에서, 저의 목숨을 개들의 발에서 구하소서.

²²사자의 입에서, 들소들의 뿔에서 저를 살려 내소서. 당신께서는 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²³저는 당신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²⁴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²⁵그분께서는 가련한 이의 가엾음을 업신여기지도 싫어하지도 않으시고

그에게서 당신 얼굴을 감추지도 않으시며 그가 당신께 도움 청할 때 들어 주신다.

- ²⁶큰 모임에서 드리는 나의 찬양도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니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채우리라.
- ²⁷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그분을 찾는 이들은 주님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 ²⁸세상 끝이 모두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민족들의 모든 가문이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 ²⁹주님께 왕권이 있고 민족들의 지배자시기 때문이다.
- ³⁰세상의 모든 권세가들이 오직 그분께 경배하고
 흠으로 내려가는 모든 이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내 영혼은 그분을 위하여 살고
- ³¹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장차 올 세대에게 주님의 이야기가 전해져
- ³²그들은 태어날 백성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알리리니 주님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이다.

묵상안내

주님께서는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온갖 사랑을 다 베풀었지만 배은망덕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 모두에게서 버림받고, 십자가형으로 생명을 마감하는 순간에 처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답답하고 허망한 나머지 아버지께 하소연하는 다윗의 시편 22편을 읊조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은 더욱 더 아버지께 대한 신뢰와 순명의 깊이를 더 해줍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지만 결코 변치 않는 진리와 중단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아버지 하느님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과 일치가 더욱 더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살면서 배신당하거나 허탈함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3. 절망과 패망의 깊은 순간에 주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이 솟아난 적이 있습니까?
4.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섭리와 안배로 이끌어주시는 주 하느님께 의탁하여 위로를 얻고 힘을 다시 얻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읍시다.

묵상노트

054-1 고난을 겪으며 순종(히브 5,1-10)

성경소구 고난을 겪으며 순종(히브 5,1-10)

5 ¹모든 대사제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혀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입니다. 곧 죄 때문에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²그는 자기도 약점을 짊어지고 있으므로, 무지하여 길을 벗어난 이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³그리고 연약한 탓에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도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⁴이 영예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느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얻는 것입니다.

⁵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대사제가 되는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⁶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⁷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 주셨습니다. ⁸예수님께서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⁹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¹⁰하느님에게서 멜키체덱과 같은 대사제로 임명되었습니다.

묵상안내

루치펠 대천사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 벌을 주어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다가 악마로 변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는 것보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일러주신 사람을 구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고 완전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얼마나 고통과 번민에 휩싸였을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박히기까지 정치인과 종교인들 그리고 백성들의 무지와 거부, 수모, 박해 심지어는 제자들의 배반 등을 겪으며 얼마나 허망하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숨을 거두실 때에 예수님 역시 인간이셨기에, 죽기까지 피를 흘리며 십자가나무에 매달려 숨이 끊어질 때까지의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으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 견뎌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길고 큰 고통과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아버지 하느님께 순종하여 우리를 살리셨기에 예수님은 다시 생명을 얻어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살면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까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3. 옳고 좋은 일인줄 알면서도 그것을 깨닫고 마침내 실현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4.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수고수난을 겪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묵상노트

목상요점

1. 우리를 지어내시고 함께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주 하느님의 사랑 속에 잠겨봅시다.
2.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시면서 내가 힘겹고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시고 받쳐주시며 힘이 되어주신 주 하느님의 현존을 되새겨 봅시다.
3. 지난 5주간 동안의 기도 중에 제일 마음에 와 닿은 목상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그 성경구절을 읽으며 묵상해 봅시다.
4. 지난 5주간의 목상노트를 첫 주간 것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내 묵상에 함께하신 주 하느님을 느껴봅시다.

06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희망의 목소리-하느님의 자비)

061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이사 42,1-9)

성경소구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이사 42,1-9)

42 ¹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이,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²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³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⁴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⁵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펼치신 분

땅과 거기에서 자라는 온갖 것들을 펴신 분

그곳에 사는 백성에게 목숨을,

그 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숨을 넣어 주신 분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⁶“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⁷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 주기 위함이다.

⁸나는 야훼,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돌리지 않는다.

⁹보라, 예전에 알려 준 일들은 이루어졌고

새로 일어날 일들은 이제 내가 알려 준다.

씩이 트기도 전에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다.”

묵상안내

이사야 예언자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희망은 새로운 세계의 건설 등의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나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품어 앉아주는 자비로운 사랑의 주님의 종의 출현입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이사 42,1-3) 어느 한 쪽에 치우치거나 편애하지 않고 공의로우시면서도 동시에 자비롭게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는 주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잠겨 위로를 받으며 우리 구원의 희망을 간직해 봅시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섭섭하고 억울하고 힘겨운 우리의 순간들을 주님께 아뢰고 위로와 힘을 얻읍시다.
3. 나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죄를 지어 배반마저 했던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용서와 평화를 얻읍시다.
4.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나아갑시다.

묵상노트

성경소구 임마누엘(이사 7,14; 미카 6,8; 7,18-20)

7¹⁴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6⁸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7¹⁸ 당신의 소유인 남은 자들,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못 본 체해 주시는
당신 같은 하느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¹⁹ 그분께서는 다시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모르는 체해 주시리라.

당신께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 주십시오.

²⁰ 먼 옛날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을 성실히 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묵상안내

주 하느님께서서는 원죄를 범함으로써 자승자박으로 에덴동산의 행복을 산산이 깨어버리고 고통의 나라에 빠져버린 인간을 가엾고 안쓰럽게 바라보시며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고, 먼 훗날 악을 여인의 발아래 짓밟아 버리고 인간을 구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은 하느님의 자비를 실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소유인 남은 자들, 그

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못 본 체해 주시며 …… 그분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미카 7,18) 우리 죄를 추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용서와 위로 그리고 새 희망의 꿈을 안고 나아갑시다.

목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3.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못 본 체해 주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용서와 위로 속에 잠겨봅시다.
4. 주 하느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주 하느님과 함께 걸어 나갑시다.

목상노트

063 유다에게 구원을(나훔 1,12-2,3; 하바 2,1-6)

성경소구 유다에게 구원을(나훔 1,12-2,3; 하바 2,1-6)

1 ¹²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빈틈없고 그토록 많아도

잘려 나가 사라지고 말리라.

내가 너를 괴롭혔지만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으리라.

¹³이제 나는 그가 너에게 메운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어 주리라.”

¹⁴주님께서 너를 거슬러 명령을 내리셨다.

“다시는 너의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나지 않으리라.

나는 조각 신상과 주조 신상을

너의 신전에서 없애 버리고

네 무덤을 파 놓으리니

네가 쓸모없기 때문이다.”

2 ¹보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평화를 알리는 이의 발이

산을 넘어온다.

유다야, 축일을 지내고

서원을 지켜라.

불한당이 다시는 너를 넘나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완전히 망하였다.

²파괴자가 너를 치러 올라갔다.

성채를 지키고

길을 살피며

허리를 동여매고

힘을 모두 모아라.

³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들을 망쳐 버렸지만

정녕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영예처럼

야곱의 영예를 되돌려 주시리라.

2 ¹나는 내 초소에 서서,
성벽 위에 자리 잡고서 살펴보리라.
그분께서 나에게 무어라 말씀하시는지,
내 하소연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²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환시를 기록하여라.

누구나 막힘없이 읽어 갈 수 있도록 판에다 분명하게 써라.”

³지금 이 환시는 정해진 때를 기다린다.

끝을 향해 치달는 이 환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늦어지는 듯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은 오고야 만다, 지체하지 않는다.

⁴보라, 뻔뻔스러운 자를.

그의 정신은 바르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⁵참으로 재물은 믿을 수 없다.

거만한 사람은 견디어 낼 수 없다.

저승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린 그자는

죽음과 같아 만족할 줄 모르고

모든 민족들을 끌어들이며

모든 백성들을 모아들인다.

⁶그러나 이들은 모두 그를 두고 조롱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그를 비웃는 수수께끼를 지어 내지 않겠느냐?

불행하여라, 남의 것을 굶어모으고

담보로 잡은 것을 쌓아 두는 자!

언제까지 그러할 셈인가?

묵상안내

세상의 한계와 절망 속에 갇혀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주 하느님께서 다시 한 번 희망의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나는 그가 너에게 메운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를 묶은 시슬을 끊어 주리라.”(나훔 1,13) 아무도 그 어느 곳에서도 나를 구해줄 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만을 애타게 바라봅니다. “보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평화를 알리는 이의 발이 산을 넘어온다.”(하바 2,1)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오고 계십니다. “늦어지는 듯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은 오고야 만다, 지체하지 않는다.”(3절) 주님은 지체 없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달려오고 계시는 주님을 맞이합시다. ‘주님,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 있는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애절하게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느껴봅시다.
3.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달려오시는 주님을 맞이합시다.
4. 우리에게 오신 주님 품 안에 잠겨 평안히 머물시다.

묵상노트

성경소구 선한 목자(즈카 13,1-9; 말라 3,1-5)

13 ¹“그날에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와 부정을 씻어 줄 샘이 터질 것이다.

²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나는 이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을 없애 버려, 그들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겠다. 또한 나는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치워 버리겠다.** ³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계속 예언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가 예언할 때,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찌를 것이다. ⁴그날에 예언자들은 예언을 하면서도 저희가 본 환시를 부끄럽게 여기며, 속이려고 입던 털옷을 걸치지 않을 것이다. ⁵그러면서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 땅을 일구는 사람ियो. 사실 젊어서부터 땅이 나의 전 재산이었소.’ 하고 말할 것이다. ⁶누가 그에게 ‘당신 가슴에 있는 이 상처들은 어찌 된 것이요?’ 하고 물으면, 그는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⁷“칼아, 나의 목자를 거슬러,

내 동료들 거슬러 깨어 일어나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너는 목자를 쳐서 양 떼가 흩어지게 하여라.

나도 손을 돌려 그 새끼들을 치리라.

⁸주님의 말씀이다.

온 땅에서

삼분의 이가 잘려 죽고

삼분의 일만 살아남으리라.

⁹나는 그 삼분의 일을 불 속에 집어넣어

은을 정제하듯 그들을 정제하고

금을 제련하듯 그들을 제련하리라.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리라.

나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고

그들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리라.”

3 ¹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출연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²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어 내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제련사의 불 같고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

³그는 은 제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⁴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⁵나는 심판하러 너희에게 다가가리라.

나는 주술사와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팔이꾼의 품삯을 떼어먹고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자

이방인을 밀쳐 내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거슬러

곧바로 증인이 되리라.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묵상안내

세상을 살면서 어디 한 곳 의지할 데 없고, 누구하나 매달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을 대신 떠맡아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인간 중에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들어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외로움과 아픔을 들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힘과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주 하느님이십니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리라. 나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고 그들은 ‘주님께서서 는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리라.**”(즈카 13,9)

그리고 그 하느님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느님께로 이끌어 주실 분은 바로 하느님께서 보내주시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말라 3,1)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우리를 염려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구하시고자 하시는 주 하느님을 바라봅시다. 주 하느님께 우리의 아쉬움과 염원과 바람을 고합시다.
3. 우리에게 주 하느님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느끼게 해 주시기 위해 오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청합시다.
4. 주 예수님께 잠겨 평안히 머물시다.

묵상노트

064-1 세례자 요한의 증언(요한 1,19-27)

성경소구 세례자 요한의 증언(요한 1,19-27)

1¹⁹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20²⁰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21²¹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2²²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23²³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24²⁴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25²⁵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26²⁶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27²⁷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리기에 도 합당하지 않다.”

묵상안내

세례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답합니다. 그러면서도 신자로서 하느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찾아 실천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회개로 새로운 삶으로의 길을 시작하는 세례자 요한을 우리 마음속 깊이깊이 울립니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사랑의 눈길을 느껴봅시다.
3. 나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시는 주님 사랑 안에 폭 잠깁시다.

묵상노트

묵상요점

1.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의 과오와 죄악을 씻어주시고 이끌어 주고 계신 주 하느님의 사랑 속에 잠겨봅시다.
2.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간절히 주님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며, 주 하느님께서 내게 펼쳐주시는 희망은 무엇인지 바라봅시다.
3. 지난 5주간 동안의 기도 중에 제일 마음에 와 닿은 묵상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그 성경구절을 읽으며 묵상해 봅시다.
4. 지난 5주간의 묵상노트를 첫 주간 것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내 묵상에 함께하신 주 하느님을 느껴봅시다.

07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천지개벽-가난과 겸손한 탄생)

071 예수님 탄생 예고(루카 1,26-38)

성경소구 예수님 탄생 예고(루카 1,26-38)

1²⁶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²⁷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²⁸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²⁹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³⁰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³¹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³²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³³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³⁴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³⁵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³⁶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³⁷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³⁸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묵상안내

주 하느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골몰하셨습니다. 어느 민족의 누구를 세상을 구할 아들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할까? 세상 곳곳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 하느님께서서는 고르고 또 고르셨습니다. 그 중 유대인 중에 순박하고 신심 깊은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주 하느님의 커다란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쉽게 납득하지도 못하고 그러기에 더욱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권능과 신비는 우리의 좁은 세계를 넘어섭니다. 주 하느님의 섭리로 새로운 세계를 열고자 하시는 하느님을 믿고 그 권능에 의지하도록 합시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어 헤매고 있는 인간 군상들을 구하러 오시는 주 예수님을 맞이하고, 우리 안으로 모시도록 합시다. 주 하느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 주님의 구원계획을 시작하시도록 우리를 내 맡기며 봉헌합시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악으로 헤매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 하느님의 눈길을 느껴봅시다.
3. 주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시는 부르심을 느끼며, 나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시는 주 하느님께 나 자신을 믿고 맡깁시다.
4. 주 하느님의 권능이 내게 다가오고 스며들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신비를 경험해 봅시다.

묵상노트

성경소구 마리아 엘리사벳 방문과 노래(루카 1,39-56)

1 ³⁹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⁴⁰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⁴¹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⁴²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⁴³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⁴⁴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⁴⁵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⁴⁶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⁴⁷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⁴⁸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⁴⁹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⁵⁰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⁵¹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습니다.

⁵²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⁵³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⁵⁴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⁵⁵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⁵⁶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묵상안내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 하느님의 아기를 수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에 놀람기도 하고 감읍하기도 하여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함

니다. 은혜로이 대답은 했지만 설렘 반 걱정 반인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천사의 말이 사실인지? 천사가 즈카르야를 통해 엘리사벳에게는 어떻게 나타났고, 엘리사벳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등의 궁금증과 확신과 위로를 받기 위해 찾아 나섭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태중의 아들 세례자 요한마저 기뻐 뛰놀았다고 전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라는 엘리사벳의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해들은 마리아는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기쁨에 가득 차 주님께 찬미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마리아 자신을 통해 예수 아기를 잉태하게 하고, 새로 태어날 예수 아기는 주 하느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리라는 예언에 대한 감사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이 은혜로운 하느님의 자비는 마리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부터 온 인류에게 퍼져 나갈 구원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 아기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어 마지막 날 모든 이가 구원의 하느님 나라에서 주 하느님과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는 희망의 기쁜 소식입니다.

목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엘리사벳을 통해 드러난 주 하느님의 또 다른 축복에 확신하며 기뻐하는 마리아를 봅니다.
3.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자신들에게 내린 주 하느님의 뜻을 살피고 또 그에 기꺼이 응답하며 기뻐하는 두 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가슴 깊이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새로운 뜻을 일러주시는 주 하느님을 느껴봅시다.
4. 주 하느님께서 일러주시는 새로운 희망과 구원의 기쁜 소식에 나를 봉헌하기로 합시다.

목상노트

성경소구

1¹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¹⁹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²⁰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서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²¹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²²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²³“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²⁴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²⁵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묵상안내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할 마음으로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듣기도 싫고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배신감과 허탈함과 분노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의 사랑을 배반하고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규정대로 마리아를 고발하여 돌을 맞아죽이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사랑에 충실한 요셉은 마리아를 남몰래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고민 속에 방황하다가 간신히 잠에 든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서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요셉은 또 다른 당혹감과 아울러 평안함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마리아의 임신소식을 듣고 배신감과 허탈함과 분노로 방황하는 요셉을 바라봅니다.
3. 그렇게 헤매는 요셉을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천사를 보내시는 주 하느님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4. 인간의 사고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주 하느님의 섭리와 안배 속에 나를 맡깁시다. 내게 닥쳐오는 전혀 새롭고 받아들이기 힘겨운 사건과 상황 속에서 주 하느님의 메시지를 들어 읽어봅시다.

묵상노트

성경소구 예수님의 탄생(루카 2,1-7)

2 ¹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²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³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⁴요셉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⁵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⁶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⁷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묵상안내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기를 방해라도 하듯이 세상은 그의 부모를 힘겹게 합니다. 아기의 부모는 인구조사를 받으러 오랜 기간 동안 고향 길을 걸어가야 했었고, 고향에 갔지만 그들이 머물 마땅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기는 태어났지만, 몸 하나 제대로 누울 곳조차 없습니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설 자리조차 없는 예수 아기는 그야말로 버림받듯이, 그 혼한 쪽방조차 없어서 마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하느님의 아이는 포대기에 싸여 말 밥통에 누이게 됩니다. 이렇듯 하느님은 처절하게 세상에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와 송구스러움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저 우리를 향해 방긋 방긋 웃고 계십니다. 고통과 번뇌의 아픔 속에 찌든 우리의 삶에 한 줄기 희망을 주십니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요셉과 마리아의 힘겨운 여행과 긴박하고 처절한 해산을 바라봅시다.
3. 가난하고 처절한 상황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를 향해 방긋방긋 웃으시며 축복해주는 예수 아기를 바라봅시다.
4. 살면서 아픔과 고통 그리고 갖가지 걱정거리로 가득한 우리에게 영혼의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 주시는 듯한 예수 아기를 바라봅시다..

목상노트

성경소구

- 1 ¹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²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³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⁴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⁵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⁶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⁷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⁸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⁹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¹⁰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¹¹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¹²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¹³이들은 혈통이나 육욕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¹⁴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¹⁵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¹⁶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¹⁷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¹⁸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 주셨다.

묵상안내

하느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몸 하나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의 말 밥통에 눕게 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를 위한 조그마한 공간도 안식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예수

아기의 이러한 출생은 인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이해관계에 빠져 예수님을 반기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누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도, 그 누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우리에게 오신 우리 삶의 길이요 잔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3. 주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밀어내고 있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온갖 탐욕과 이해관계 속에 설 자리조차 없어 안타까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4.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해주시려 손을 내 뻗으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내어맡기며 주님 사랑 안에 잠겨봅시다.

묵상노트

목상요점

1.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 하느님을 맞이해 봅시다.
2. 우리를 내어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느님의 섭리와 안배를 하나씩 되새겨 봅시다. 우리를 주님의 섭리와 안배 속에서 이끄시는 주 예수님의 품에 잠겨 봅시다.
3. 지난 5주간 동안의 기도 중에 제일 마음에 와 닿은 목상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그 성경구절을 읽으며 목상해 봅니다.
4. 지난 5주간의 목상노트를 첫 주간 것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내 목상에 함께하신 주 하느님을 느껴봅니다.

08 내 사랑하는 아들(주님의 세례-공생활의 시작)

081 목자들의 방문(루카 2,8-20)

성경소구

2⁸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⁹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¹⁰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¹¹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¹²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¹³ 그때에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¹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¹⁵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¹⁶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¹⁷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 주었다. ¹⁸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¹⁹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²⁰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묵상안내

예수님은 대낮에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수를 받으며 오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지 관심도 없고 반기지도 않는 상황 속에 홀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맨 처음 목자들을 만나십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오늘의 탄광인부처럼 막장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목자들을 맞이하십니다. 목자들은 자신들도 가난하고 처절하게 살지만, 그야말로 몸 하나 누울 데가 없어서 말 밥통에 누워계신 예수 아기를 바라보며 위로와 희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재산과 높은 자리와 명예를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겨운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안을 안겨 주십니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말 밥통에 누워계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목자들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3. 말 밥통에 누워서 우리를 반기시는 예수 아기를 바라봅니다.
4. 아귀다툼의 세상 속에서 어느 누구의 질투나 시샘의 대상도 아닌 힘없고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향해 맑은 미소를 보내주시는 주 예수님 안에서 쉬어봅시다.

묵상노트

성경소구 동방박사들의 방문(마태 2,1-12)

2 ¹예수님께서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²“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³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⁴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⁵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헬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⁶유다 땅 베들레헬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⁷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⁸그들을 베들레헬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⁹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¹⁰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¹¹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¹²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

묵상안내

예수님은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을 맞이하십니다. 예수 아기를 세상에 보내시는 주 하느님은 하느님의 아들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표징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주 하느님은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예수 아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의 탄생으로 발견하고 존중하고 조출한 경배를 드릴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주 하느님은 점성술가들에게 기묘한 별로, 새로운 빛으로 구원의 희망을 안겨주실 예수 아기의 탄생을 알아차리도록 해주십니다. 점성술사들은 새로운 빛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주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세주의 탄생을 반기지 못합니다. 그보다는 그로 인한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한 나머지, 예수 아기를 죽일 음모를 품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에 놓인 아기 예수의 풍전등화같은 인생이 시작됩니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동방박사들이 주 예수님에게서 어떤 면에서 새로운 인생의 의미와 길을 발견하는지 바라봅니다.
3. 우리를 구하러 오신 주 예수님을 반기지 못하고 꺼리며 제거하고 싶어 하는 이들을 바라봅니다.
4. 주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는 동방박사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 예수님께 탄생 축하 선물을 드립니다.

묵상노트

성경소구 예수님의 할례와 성전 봉헌과 시메온과 한나의 예언(루카 2,21-39)

2²¹어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 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 준 이름이었다.

22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그들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23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24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25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26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 27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28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29“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30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31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32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33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34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35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36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프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살고서는, 37여든네 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38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아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39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래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묵상안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 아기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혹시나 누가 알아보고 해꼬질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성전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설렘으로 들어섭니다. 성

전 중간에 다다랐을 때 시메온이라는 예언자가 찾아와 예수 아기를 안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을 건넵니다. 시메온은 예수 아기를 보고 그리스도성, 성성을 발견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가득차 이스라엘과 온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빛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편 박해받는 표징으로서의 예수를 예견하기도 합니다. 한나도 예수 아기를 비범하게 대하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예수 아기 안에서 그리스도, 신성을 발견하는 시메온과 만나를 바라봅니다.
3. 사람들의 멸시와 거부와 비난과 박해를 받으실 예수님의 일생을 바라봅니다.
4. 우리가 주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신성을 되새겨 봅시다. 나는 언제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 시작했고, 지금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노트

성경소구 예수님의 유소년 시절(루카 2, 40-52)

2 ⁴⁰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총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⁴¹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⁴²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⁴³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⁴⁴일행 가운데에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⁴⁵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⁴⁶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⁴⁷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⁴⁸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⁴⁹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⁵⁰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⁵¹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⁵²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묵상안내

예수님은 나자렛 성가정에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때로는 아버지 요셉을 따라 대패질도 하고, 어머니를 도와 요리와 청소 및 빨래 등의 잔심부름을 하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때맞춰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당시의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도 받으며 당대 유대인들이 배우고 습득해야 할 사회의 가치관과 처세술을 채우게 됩니다. 하루는 성전에 축제를 보내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는 부모와 함께 돌아가는 행렬에 끼지 않았습시다. 부모는 사흘이 지난 후에야 자식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는 애가 타서 성전으로 되돌아가 예수를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는 태연자약하게 학자들과 둘러 앉아 하느님의 신비와 구세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모가 깜짝 놀라고 반가워서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엄마와 아빠가 예수를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며 나무랍니다. 그러자 어린 예수는 거꾸로 묻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자식을 잃고 다급해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3. 주 하느님의 품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제자리를 찾으신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4.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 우리 자신이 채워짐과 평안함과 온전함을 느끼는지 되새겨 봅시다. 그곳이 진정 주 예수님의 품속에서 주님 사랑 안에 머물 때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도.

묵상노트

084-1 세례를 받으시다(마태 3,13-17)

성경소구 세례를 받으시다(마태 3,13-17)

3 ¹³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¹⁴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¹⁵예수님께서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¹⁶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¹⁷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묵상안내

드디어 어린 예수는 사회로 나설 때가 됩니다. 예수는 주 하느님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해주신 부모님께 자신의 진로와 인생의 의미에 대해 나누며 선택을 가다듬어 나갑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때가 차자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후 사회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새 인생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분은 입신양명과 재물취득과 권력적인 자리매김을 시작하시기보다, 광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한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때 주 하느님께서 그러한 선택을 한 예수를 바라보시고는 기뻐하시며 성령을 내려주시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어린 시절을 마감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 것인지를 주 하느님께 묻고 찾으며, 지상생애의 부모님과 상의하며 고민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3. 사회에서 첫 발을 내딛으시려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며 선택의 결의를 다지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4.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으며 지금까지 지은 우리 죄를 씻고 단절하며 어떻게 새로 날 것인지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목상노트

성경소구 하느님의 어린양(요한 1,29-34)

1²⁹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³⁰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³¹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³²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³³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³⁴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묵상안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진정 우리의 희망이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선언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자신이 들은 내용을 예수님께 적용하여 소개합니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어린양이라고 확언합니다. 요한이 듣고 본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양이라고 부르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묵상요점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우리가 바라보는 하느님, 예수님, 성령님은 누구이시며,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대하며 그분들께 흠숭과 기도를 봉헌하고 있는지?
3.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참 모습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르신가?

목상노트

묵상요점

1.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 하느님의 사랑 속에 잠겨봅시다.
2. 우리를 내어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느님의 섭리와 안배를 하나씩 되새겨 봅시다.
3. 지난 5주간 동안의 기도 중에 제일 마음에 와 닿은 묵상이 있으면 다시 한번 그 성경구절을 읽으며 묵상해 봅시다.
4. 지난 5주간의 묵상노트를 첫 주간 것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내 묵상에 함께하신 주 하느님을 느껴 봅시다.